

1-10 학급신문

서재운 총괄, 정재운 편집, 김규아 외 6명 기사 작성

1-10반 수련회 특집



여학생들이 담력체험 모둠사진을 찍고 있다.

공포의 담력체험, 그리고 탄생한 '창틀자리 공포증'!

- 김규아 기자

담력체험은 괴담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계속 몸이 안 좋았던 여학생이 한 선생님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여학생은 사라지고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는 괴담이었다.

생생하고 자세하게 설명된 괴담과 그 사이사이에 지직대는 소리나 갑자기 닫히는 문 등 덕분에 mbti 뺑치는(아마도) 수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괴담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놀리는 사람, 매점 갈 생각하는 사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로 나뉘었다.

그 이후 본격적인 담력체험이 시작되었다. 캄캄한 밤, 손전등의 작은 불빛에 의존해 글씨를 찾아다니면 되는, 말로 듣기에는 쉬운 체험이었다. 그러나 비밀병기 이형우 선생님, 전승환 선생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상황은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광기극 사로잡힌 눈으로 화려한 스텝을 밟으면서 뛰어다니는 전승환 선생님 덕에(?) 순식간에 숲은 난장판이 되었다. 학생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처음에 여유롭던 학생들도 점차 긴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이형우 선생님이셨다. 이형우 선생님께서서는 풀숲에 숨어계시다 천천히 걸어나오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특히나 10반 여학생들을 놀리는 데에 맛을 들이셨는지 계속 놀래키셨다. 결국 숲은 갑자기 노래방으로 변질되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좋게 말하면 고음, 나쁘게 말하면...)

짜릿하고도 무서움의 연속이었던 담력체험, 그 덕분에 일명 '창틀자리 공포증'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몇몇 학생들은 창가 자리만 보면 그날 밤의 공포가 떠오른다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수련회에서의 식사

-서재운 기자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양분 공급, 즉 식사다.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는 특히 더 잘 먹어야 하는데, 수련회에서는 어땠을까? 우선 첫날 저녁에는 중식이 나왔고, 둘째 날 점심에는 특별메뉴인 피자과 파스타 등 양식, 마지막 날에는 한식이 나왔다. 이렇게 다양한 식사를 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몇몇 학생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듯 음식을 많이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바로 학생들이 식사 후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사 예절에 대한 안내를 2번이나 받았다는 점이다! 그래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다른 학생들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음 수련회 때는 식사 예절 안내를 한 번만 받기를!

이번 달의 명언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초적인 열쇠이다." - 파블로 피카소

이 명언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피카소는 평생 2만여 점의 작품을 남길 정도로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했던 예술가였기에, 이 말이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6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미뤘었던 일들이나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작은 첫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학교생활

수련회 후, 다시 찾아온 수행평가 지옥!

- 박우민 기자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수행평가 지옥이 닥쳤다. 수련회를 다녀온 지 불과 이틀만의 일이다.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축구 수행평가, 줄넘기 수행평가, 영어 시간에 irregular verb 수행평가, 그리고 음악 시간의 리코더 수행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특히 축구 수행평가에서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고, 줄넘기에서는 몇 명의 학생들이 연속으로 넘지 못해 아쉬워했다. 영어 irregular verb 수행평가는 암기의 압박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음악 시간 리코더 수행평가에서는 "도레미파솔"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좌절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몇몇 학생들은 "고생 뒤 락이 온다가 아니라 수련회에서 고생한 뒤 또 고생이 오는 것 아니냐", "수련회 앞뒤로 수행평가가 왜 이렇게 많냐", "힘들어 죽겠다", "수련회에서 쉬었는데 왜 바로 수행평가냐" 등 불만의 말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차라리 수련회를 더 갔다 오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Photo Description: 1학년 10반 남학생들이 브레인 챌린지를 하고 있다.

뜨거운 땀별 속 브레인 챌린지!

- 김서윤 기자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2박 3일간 양평 미리내 캠프로 1학년 전체 수련회를 다녀왔다.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수련회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마지막 날의 주요 일정은 브레인 챌린지였다.

브레인 챌린지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하나씩 완벽하게 수행할 때마다 점수를 얻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반마다 학생들을 남녀로 나누어 뜨거운 땀별에서 활동해야 했기에 처음에는 너무 덥고 힘들었지만, 다양한 게임들을 친구들과 함께 체험하다 보니 더 친해졌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브레인 챌린지가 끝나면서 수련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1학년 첫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찼다. 1학년 모두 안전하고 재미있게 수련회 갔다 와 주어서 고맙다.

즐거웠던 활동들!

-신동우 기자

수련회 장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다. 10반이 제일 먼저 한 건 도미노였다. 비록 다 완성을 못했을지언정 서로 응원하며 추억을 쌓는 좋은 시간이었다. 밤에는 야간추적활동을 했다. 하는 동안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놀래키시기도 했지만, 그걸 못 봤던 아이들은 기대했던 것과 달라 실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귀할 때쯤 골프장 뒤쪽 산에서 불빛이 났는데, 아이들이 산불이라고 해서 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아니었다. 그다음 10반 활동은 오감체험 활동이었다. 몸으로 말하기, 노래 맞추기, 영화 맞추기, 냄새 맞추기, 물건 맞추기, 주스 맞추기를 했다. 비록 몇 개 못 맞춰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그다음 활동은 오리엔티어링이었다. 지도를 들고 편칭기를 찾아다니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은 친구들과 같이 다니며 우정과 신뢰도를 쌓았다. 그리고 다음 활동은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10반은 1차 시기에서는 100점을 넘기며 아쉬웠지만, 2차 시기에서 신발을 한 방에 낚아채는 슬라이딩으로 환호를 들은 S군 그리고 다른 미션도 해내며 무려 81.78로 많은 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2등이었다. 둘째 날의 마지막 활동은 챌린지 아마존이었다. 비록 물에 빠질까 봐 무서워 참여도는 낮았지만, 해보고 난 후 아이들의 참여도가 더 올랐다. 몇 명이 빠지기도 했지만 안전하게 잘 끝냈다. 둘째 날의 진짜 마지막 레크리에이션! 아이들이 원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7번, 왼쪽으로 7번, 뒤로 앞으로 간 후 짹 짹 짹 짹 짹 10반을 외치며 재밌는 활동을 한 후, 아이들이 앞으로 가서 어깨동무를 하고 신나게 노래를 떴창했다. 미리내에서의 진짜 마지막 활동은 브레인 챌린지였다. 여러 가지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어려웠다. 마지막 점수 발표 때 2000점을 넘기는 점수가 대다수 나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끝난 우리의 첫 수련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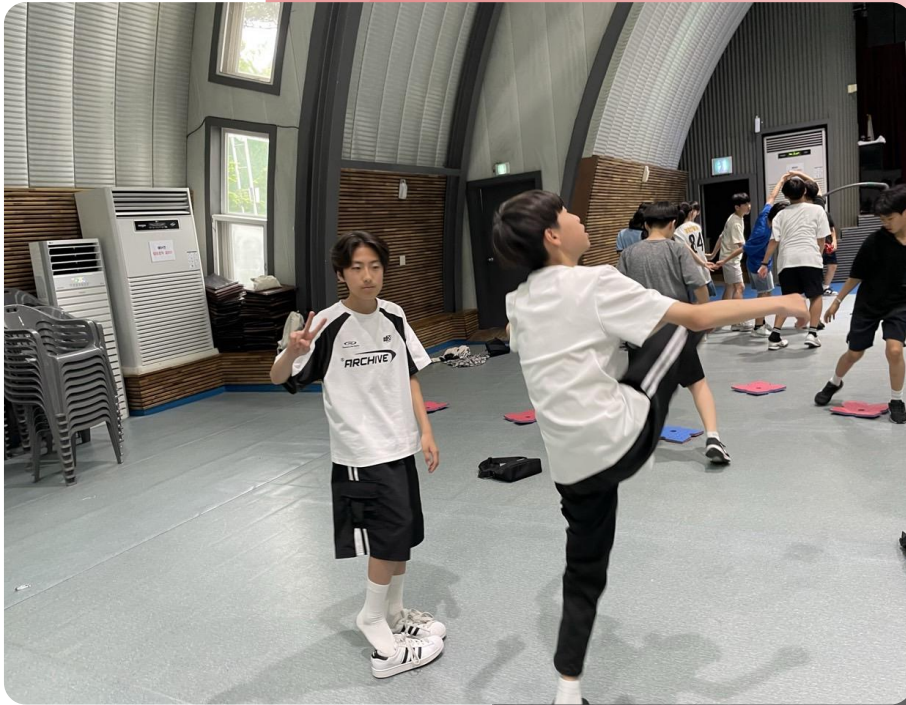


Photo Description: 조유찬 학생과 이서준 학생이 미션 99초 준비를 하고 있다.

밤중의 끝나지 않는 웃음소리

수련회에서 겪은 섬뜩한 실화

-서재윤 기자

수련회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모두 잠자리 준비를 마치고 하하호호 웃으며 놀다가 이제 막 자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방 안의 한 친구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웃음이 5분, 1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저희가 이유를 물어보니 그 친구는 그냥 웃기다고만 했습니다. 웃긴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웃긴 생각이 난 것도 아닌데 계속 웃는 모습을

보니 저희는 괴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웃었을 때, 저희는 지칠 대로 지쳤고 이미 충분히 달래봤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친구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괴담과 거의 일치하는 상황에 대부분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상담을 받은 후에야 약 한 시간 동안 지속된 웃음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저희 방 친구들은 그렇게 무서운 밤을 보내며 잠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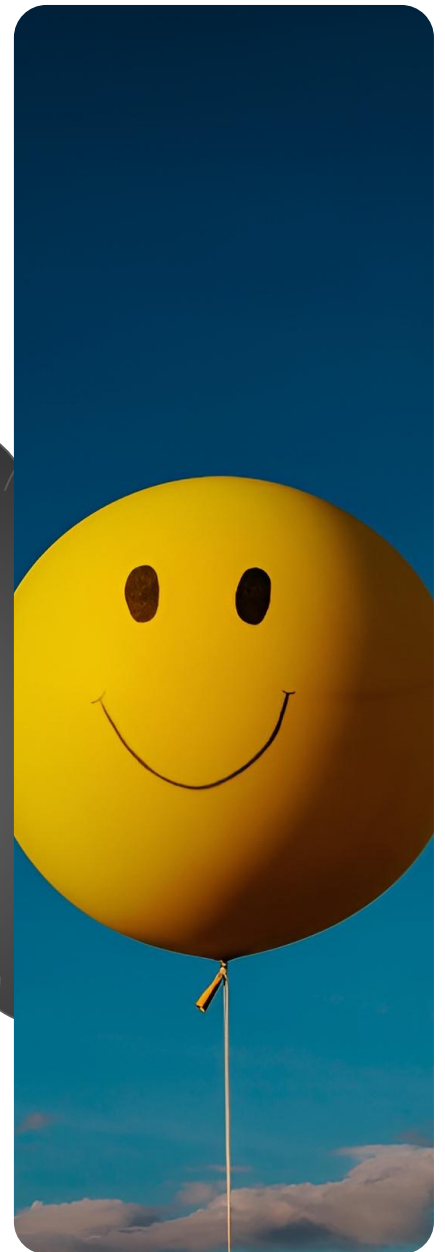


Photo Description: Happy Balloon



엄청난 퀄리티의 장기자랑!

-신동우 기자

2일차 밤 아이들을 기대하게 만든 것이 있다. 바로 장기자랑이다. 비록 신청했던 33팀 모두 다 그들만의 기량을 발휘할 순 없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33팀 중 14팀만이 합격했다. 거기에 중도포기한 팀 2팀을 제외해서 총 12팀이 나왔다. 우리 반에서는 정재윤, 이서준, 정연재, 박동윤, 최해나, 이채운 6명이 오디션에 붙어 나왔다.

이서준의 'Eminem - Rap God'을 부르며 '역시 이서준!'이라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3번째 팀이었던 이서준, 김신겸, 정재윤 팀(팀 트리니티)에서 좋지 않은 무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재윤의 'Godzilla'가 나오자 많은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언제나 교실에서 부르던 시그니처 랩을 장기자랑에서 들으니 기분이 약간 몽클했다는 아이들도 몇 명 있었다. 그다음 이서준의 'Eminem - Rap God'을 부르며 "역시 이서준!"이라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리반 장기자랑 팀

언제나처럼 완벽한 랩을 소화하며 TEAM TRINITY는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꼭 채웠다.

최해나는 타반 친구들과 함께 나가 춤을 선보였다. 몇몇 아이들은 웃기도 했지만 다 같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연재, 박동윤, 이채운과 타반 친구들이 모인 팀은 '박살'이라는 이름으로 춤을 선보였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따라 부르기도 했다.

전체 장기자랑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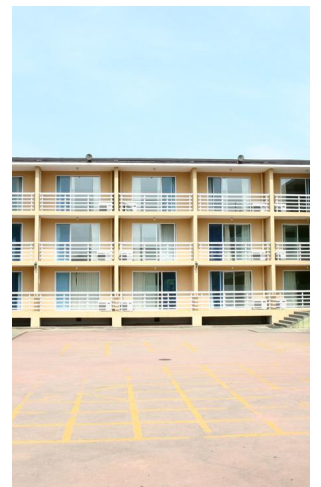
14팀 모두 멋진 무대를 선보였고, 랩을 부르다 환색 종이를 날리며 호응을 유도했던 AOMG조, 롤리폴리를 춘 BAE BAE조 등 많은 팀들이 다 좋았다. 그리고 대망의 초대가수는 1학년 기술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전승환 선생님께서 초대가수로 오셔서 가수 쿨의 '아로하'를 2번이나 부르셨다. 아마도 이때가 제일 많은 반응이 나왔던 것 같고, 곳곳에서는 하트가 보이기도 했다. 또한 아쉽게도 참가를 못했던 팀들도 응원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한을 풀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간도 넉넉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 팀도 참여할 수 있다!

1학년들의 첫 수련회!

-이하나 기자

6월9일에서 11일까지 2012년생들은 서운중에서의 첫 수련회에 떠났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에 30분씩이나 일찍 학교에 와서 버스를 기다리곤 했다. 1학년들이 간 곳을 미리내 수련원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한 체험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체험은 첫날 밤에 한 담력체험이었다. 미리내 수련원의 실제 괴담을 듣고 진행된 담력체험이어서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체험 중에 1학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놀래키셨다. 그 중 우리 반, 형우 선생님께서 가장 무섭게 놀래키셨다며 선생님이 쓰고 계셨던 빨간 모자에서 딴 빨간 모자 괴물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시곤 했다. 활동들 중에 학생들이 가장 재밌고 스릴을 느꼈던 활동은 아마존 체험이었다. 특히 여학생들이 물이 빠지는 것을 무서워해서 참여율이 조금 낮았으나, 막상 해본 학생들은 짜릿하고 재밌다며 여러번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참여를 하다가 물에 빠진 학생도 있었지만,, 모두들 안전하게 활동해서 다행인것 같다! 이번 1학년들 모두 재밌고 즐겁고 안전하게 수련회에 갔다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 반끼리, 친구끼리 더 친해질 수 있던 기회였다. 수련회에서 갔다 온것은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기대를 해보자!!



양평 미리내 캠프